

## 가족의 구조가 가계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김 효 정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미국의 지배적인 규범 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영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각 세대간에 있어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규범의 틀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으며, 조부모-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이외의 다른 가족 유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이외의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대가족에 초점을 두어, 확대가족의 형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의 가계경제복지에 가족 구조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 중 가장 최근 것인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하는 838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연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확대가족을 모두 6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들의 연가계소득의 평균을 살펴보면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있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연평균소득의 평균은 \$46,359.67로 가장 많았고, 조모-부모(부·모 모두 있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연평균소득의 평균은 \$17,353.11로 가장 적었다. 또한 확대가족의 구조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취업유무, ADLS, IADLS를 독립변수로 함께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대가족의 구조(조모-부모-손자녀), 교육수준, 취업유무, 확대가족의 구조(조모-손자녀)순으로 유의하였으며, 16%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나,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비해 연가계소득이 적었고,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가계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확대가족 내에 조부와 조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 비해 조모만 있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가계를 운영해 나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모의 경우 조부보다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조부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조부없이 조모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확대가족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가계경제복지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